

석유화학, 터키 수출 기대한다!

한국-터키, FTA 가서명 ... 관세 6.5% 즉시철폐 합성수지 수혜

정부가 터키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함에 따라 7년 안에 공산품 관세가 철폐돼 자동차, 철강 등 공산품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FTA가 발효되면 자동차(10-22%), 자동차부품(3-4.5%), 컬러TV(14%), 평판압연제품은 7년 안에 수입관세가 철폐된다.

화섬(4%), 직물(8%)은 5년 안에, 석유제품(3.5-4.7%), 석유화학제품(6.5%)은 즉시 철폐된다.

지식경제부는 터키가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유망한 수출시장으로, 특히 자동차·자동차부품, 석유화학제품, 철강, 섬유 등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터키가 유럽과 아시아·중동·아프리카를 잇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인근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터키는 인구가 7400만명으로 2010년 명목 GDP가 7290억달러로 경제규모가 세계 17위이며, 2010년 경제성장률은 8.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3배를 상회했다.

우리나라의 터키 교역액은 2010년 42억7000만달러, 2011년 58억8000만달러를 나타냈다.

2011년에는 수출 50억8000만달러, 수입 8억달러로 42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해 2010년 32억3000만달러에 비해 10억달러 가량 증가했다.

특히, 터키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FTA가 발효되면 수출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11년에는 터키 수출액의 12.1%를 차지했고 관세 6.5%가 철폐되면 PP(Polypropylene),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등 합성수지 수출이 늘어나고 중국, 일본 등과의 경쟁에서도 우위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섬유도 우리나라가 9번째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시장으로, 2011년 터키에 대한 섬유 수출은 9.6% 늘어나 2억9800만달러에 달했다.

주력 수출품목인 화섬장섬유사, 화섬단섬유, 화섬직물, 편직물 등은 5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면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섬유제품에 20-3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스페셜 세이프가드 면제권도 확보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2/03/27>